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1
AUGUST
•
Vol.223



cover story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는 행복한 일터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

- 샤를 드골

삼성KPMG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Vision 2025'를 함께 이뤄갈 인재를 찾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행복한 일터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세요.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에 날개를 달아줄 성장의 동반자,
삼성KPMG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New Reality, 기업 도전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전략

08 Team Story

뉴노멀 시대, 스마트 워크 이끄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전문팀

10 Client+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카카오

12 Market Reader

골프장 산업 초호황,
성장 요인과 향후 전망은?

14 Expert's Advice

디지털 혁신 바람 부는
건설산업의 미래는?

15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17 KPMG Story

나는 어떤 리더로 성장하고 있나요?

18 채용 특집 I SJ워너비!

'SJ워너비! 삼성인 되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20 채용 특집 II 본부 찾기

뉴 파트너가 소개하는 우리 Function은?

22 채용 특집 III 삼성별그램

삼성KPMG에서 생활하며 가장 좋았던 순간은?

24 삼성인터뷰

여성 리더 날아오르다!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직職과 業業의 차이

28 Samjong News

'제7회 삼성KPMG ACI 웨비나' 개최 외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New Reality, 기업 도전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전략

코로나19의 새로운 현실(New Reality)은 기업의 약한 고리를 여실히 드러냈다. 동시에 산업 생태계 변화를 가속화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이와 같은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역량을 분석하며,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채장보단(採長補短)의 길을 살펴봤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기업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경영 전략을 모색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팬데믹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한국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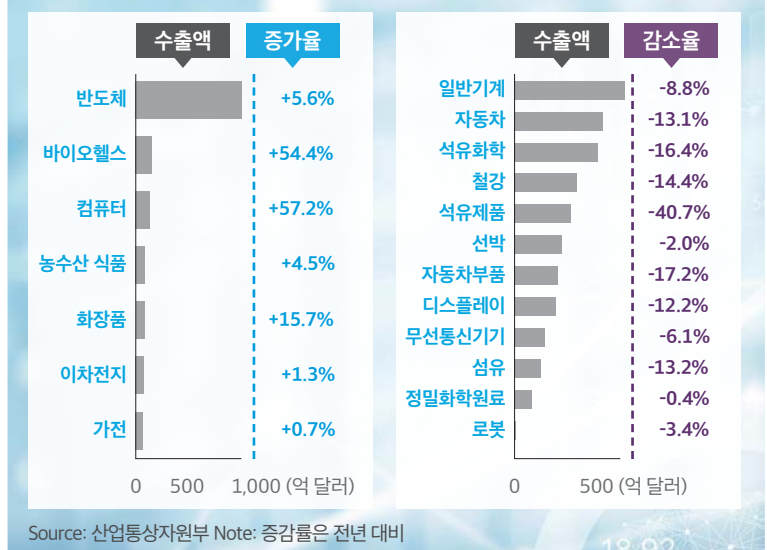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는 동시다발적인 전 세계 수요·공급 충격과 경제 위축을 야기했다. 2020년 중 글로벌 수출 규모(17.3조 달러)는 전년 대비 7.2% 감소했고, 글로벌 경제성장률

역시 전년 대비 3.3% 하락하며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1930년대 미국 대공황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비켜갈 수 없었지만, 건전한 경제 펀더멘털, 반도체 및 신성장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저력이 발휘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0% 감소하여, 미국(-3.5%), 일본(-4.8%), 독일(-4.9%), 영국(-9.9%)에 비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2020년 한국의 경제 규모는 글로벌 10위로 재도약했다.

한국 경제 규모 및 글로벌 순위 추이



2020년 한국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률



한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

2000년			
순위	기업명	시가총액 (조 원)	업종
1	삼성전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3.9	전자·반도체
2	SK텔레콤	22.6	통신
3	한국통신공사	20.9	통신
4	한국전력공사	15.1	전력
5	포항제철	7.4	철강
6	한통프리텔	4.7	통신
7	국민은행	4.5	금융
8	담배인삼공사	3.6	소비재
9	기아차 <input checked="" type="checkbox"/>	3.2	자동차
10	주택은행	3.1	금융
11	현대차 <input checked="" type="checkbox"/>	2.8	자동차
12	조흥은행	2.7	금융

2020년			
순위	기업명	시가총액 (조 원)	업종
1	삼성전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483.6	전자·반도체
2	SK하이닉스	86.3	반도체
3	LG화학	58.2	화학·배터리
4	삼성바이오로직스	54.7	바이오
5	셀트리온	48.5	바이오
6	NAVER	48.0	IT
7	삼성SDI	43.2	전자·배터리
8	현대차 <input checked="" type="checkbox"/>	41.0	자동차
9	카카오	34.4	IT
10	삼성물산	25.8	종합상사
11	LG생활건강	25.3	소비재
12	기아차 <input checked="" type="checkbox"/>	25.3	자동차

12개 기업 합산 시가총액 115 → 8.5배 → 975

Source: 한국거래소/ Note1: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기준, 우선주 제외, 연말 기준/

Note2: 표기 기업은 2000년에 이어 2020년에도 Top 12에 포함된 기업/ Note3: 파란색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IT 등 신성장산업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은 2020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의 빠른 회복세를 꼽을 수 있다.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의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산업으로 지속 육성해왔던 반도체, 바이오헬스, 컴퓨터, 이차전지 등의 품목이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 확산을 계기로 국내 수출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2020년 반도체 수출(991.8억 달러)은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고, 바이오헬스(54.4%), 컴퓨터(57.2%), 농수산 식품(4.5%), 화장품(15.7%), 이차전지(1.3%) 등도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우리나라 수출 감소율은 미국(12.8%), 독일(7.3%), 일본(9.2%)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인 4.4%를 기록할 수 있었다.

한국 기업,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내수충격 극복·미래 성장성 모색

코로나19 팬데믹 초반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부품 조달 차질, 국내외 수요 위축 등의 악재로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내 철강금속, 화학, 오락·문화, 숙박·음식 등의 업종에서는 실적 위축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비대면·의료와 같은 업종 등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발휘하며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다. 코스피 기업 전체적으로 2020년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2%, 18.2%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의약품, 의료정밀, 식음료, 전기전자 및 통신업은 전년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글로벌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과 회복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주요국 주가지수의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을 비교 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2분기 중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EPS는 2019년 12월 말 대비 16.9% 하락한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영국(-91.7%), 독일(-66.4%), 일본(-40.5%) 등의 기업 대비 실적 위축이 적었다.

이는 지난 20년간 글로벌 산업 구조가 ICT와 데이터, 플랫폼 등 무형자산 중심의 신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 역시 빠르게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동시에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 속 전후방효과가 큰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시가총액 상위 12개 기업 구성을 살펴보면 반도체, 화학·배터리, 바이오, IT 업종이 8개(67%)를 차지하며, 자동차 업종은 대표적인 국내 주력 수출기업으로 국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변화하는 산업 구조를 반영하며 국내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 기업의 위기 극복 요인은?

우리나라 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①변화 수용성, ②기업가 정신, ③빠른 실행력, ④뉴 비즈니스 창출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미국, EU 등 주요국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확진자가 견잡을 수 없이 증가하면서 이동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내수 경기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은 변화된 환경에 대한 유연한 수용성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수요·공급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품목별 차이는 있으나 2020년 국내 총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0.4% 증가해, 내수가 수출 감소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기업가 정신을 보여줬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메모리 성공 신화를 넘어 비메모리(시스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고, 화학 업계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이차전지 분야

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바이오·헬스케어 업계도 바이오시밀러, 진단키트 등을 통해 불모지와 같았던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반적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 산업들은 모두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하는 쾌거를 보였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M&A를 통해 미래사업에 신속하게 진출하는 빠른 실행력을 보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계열사 간 통합을 통해 그룹 내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집했고, SK그룹은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는 동시에 첨단소재, 그린, 바이오, 디지털 등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LG그룹도 26년 만에 휴대폰 사업에서 과감히 철수하고, 배터리 및 전장부품 경쟁력 강화에 신속히 나섰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전에 없던 뉴 비즈니스를 발굴해 새로운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은 '외식의 내식화' 및 '퀵커머스' 수요를 창출했으며, 쿠팡은 물류·딜리버리·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면서, 이커머스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쏘카는 카셰어링의 일상화를 주도하며 모빌리티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했으며,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핀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종합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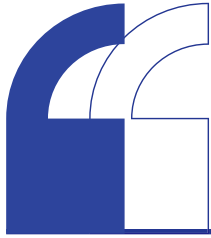
코로나19 위기 극복 요인

- 변화 수용성
- 기업가 정신
- 빠른 실행력
- 뉴 비즈니스 창출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New Reality 기업의 4대 경영 전략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비재무적 가치를 강화하는 ESG 경영 전략 및 정보공시
- Overcoming Deglobalization**
수출입선·공급망 다변화, 수입 규제 사전적 대응
- Customer Experience**
고객 니즈 선제적 포착 및 고객중심적 사고 강화
- Digital Transformation**
DT 전략을 재점검하며 가속화되는 변화 대응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한다.”
- 토마스 칼라일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의 말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현실을 재설계할지는 각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코로나19라는 걸림돌에 넘어질지 또는 이를 디딤돌로 삼아 높게 도약할지는, 지금 이 순간 각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경영 환경 변화

- 코로나19
- 기술의 급격한 변화
- 산업 간 장벽 붕괴 및 융복합
- 국가 간 이해관계 복잡화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바뀐 것은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

새롭고 차별화된 혁신으로 선제적 기회 선점



과거에도 미래에도 한국 경제의 성공 요소는 **‘기업가 정신’**

급변하는 환경 속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도전과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주도



ESG · 디글로벌라이제이션 극복 · 고객경험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주력해야

국내 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성과를 보여왔으나, 현 상태에 안주해서는 성장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접목한 산업 생태계 대변혁 속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전략으로 선제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야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궈 나갈 수 있다.

New Reality 시대 뉴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기업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4대 경영 전략으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Overcoming Deglobalization(디글로벌라이제이션 극복) ▲Customer Experience(고객경험)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들 수 있다.

New Reality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재무적 가치를 강화하는 ESG 경영 전략 및 정보공시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자국중심주의가 만연해 있는 글로벌 환경 극복을 위해 GVC(Global Value Chain) 재편, 수출경쟁력 확보, 해외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객경험이 중대해진 시대 변화 속에서 고객중심적 사고와 소비자 대응 민첩성(Agility)을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또한 재점검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와 같은 New Reality 4대 경영 전략 실행의 주춧돌로 삼아야 할 부분은 바로 ‘기업가 정신’ 함양이다. 과거 한국 기업들의 성장 원동력 중 큰 부분이 기업가 정신이었듯이 미래에도 한국 경제의 성공 요소는 기업가 정신 일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도전과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



이 칼럼은 삼성KPMG 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삼성Insight 제76호 『New Reality, 기업 도전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요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보고서 자료는 삼성KPMG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 스마트 워크 이끄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전문팀

바야흐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Digital Workplace) 시대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 MZ세대 부상에 따른 세대교체 등으로 업무 환경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기업들의 성공적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전문팀을 소개해본다.

현실화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일하는 방식 집중해 전략 수립해야

최근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현재의 비대면 근무방식을 유지할 것(70%)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60%를 MZ세대가 차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팬데믹과 세대교체에 의해, 과거 중요시되던 고객의 경험만큼이나, 임직원의 경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임직원의 업무 방식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업무 환경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업무의 몰입, 협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공유'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단편적으로 부서별 필요에 따라 챗봇, RPA, 협업 Tool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업무 경험 향상에 초점을 두지 못한 기능 중심 도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과 솔루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임직원의 일하는 방식에 더욱 포커스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기능과 어떤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 위한 End to End 서비스 제공

삼정KPMG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전문팀(이하 디지털 워킹팀)을 통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상반기부터 비대면 근무, 임직원 경험 향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적 환경 변화에도 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프레임워크(Digital Workplace Framework)를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방법론과 임직원 업무 유형에 따른 업무 혁신 방안을 수립하여 기업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워킹팀은 삼정KPMG 자체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통한 업무 혁신과 공간설계 노하우, 글로벌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방법론을 바탕으로 전략수립에서 시스템 설계까지 기업들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을 위한 End to End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대기업 SI(System Integration) 협업 Tool, 문서중앙화, 데스크톱 가상화(VDI) 등 최고의 IT 및 솔루션 사들과의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워크 방법론 개발부터 실제 이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20여 명의 팀원들이 화학과 물류, 산업제조 등 다양한 산업의 대기업은 물론 금융, 공공, 연구기관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전략 수립을 수차례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한국거래소(KRX)의 스마트 워크 전략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지원할 것!

디지털 워크팀은 앞으로도 제조업 대기업을 비롯해, 금융과 서비스, 공공 영역으로 점차 고객 영역을 넓히며 우리 기업들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뤘다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임직원의 사용자 경험 설계를 바탕으로 고객경험 설계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가상 업무 환경을 통합한 메타버스로의 업무 혁신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 UX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략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삼성KPMG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리딩 펌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디지털 워크팀의 주요 서비스 •

진단 및 설계



- 일하는 방식 및 디지털화 수준 진단 (자체 설문조사 Tool/ 분석 Pack 개발)
- 세대별/직무별/조직별 구조에 맞는 업무유형 정의
- 임직원의 사용자 경험 정의, 업무유형별 Employ Experience Journey 설계

추진 과제 및 솔루션 정의



-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현 위한 시스템, 공간, 조직문화 관점의 추진과제 정의
- 기업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적합한 시스템 기능, 솔루션 정의 (그룹웨어, 협업, 업무자동화, VDI, RPA 등)

비전 수립 및 지원



- 디지털 워크비전 수립
- 도입 대상 솔루션에 대한 PoC, 솔루션 선정 지원
- 디지털 워크 환경에 부합하는 오피스 환경 가이드라인 수립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관리 방안 수립
- 단계별 추진 로드맵 설계 및 추진 예산 계획 수립

INTRODUCE

• 디지털 워크팀을 소개한다면?

이준기 상무
(팀 리더)
jlee199@
kr.kpmg.com



“디지털 워크팀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디지털 관점에서 이끌어 내고 단기간에 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준비된 팀입니다.”

김가영
Manager
gayoungkim@
kr.kpmg.com



“코로나19, 재택근무 확산세에 따라 기업별 디지털 워크 대응을 위해 우리 팀은 IT 인프라 뿐 아닌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맞춤형 스마트 워크 전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윤범
S.Consultant
yoonbeomlee@
kr.kpmg.com



“우리 팀은 팀원들 간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디지털 워크팀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워크 같은 새로운 사업영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이런 장점이 크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민경찬
Consultant
kyoungchanmin@
kr.kpmg.com



“새로운 디지털 워크 분야의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디지털 워크팀은 법인의 BTS(방탄소년단)라는 자부심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akao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카카오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Daum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이다. 카카오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술을 한층 가깝게 연결함으로써 세상을 어제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의 존재 이유,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카카오는 전문화된 인력, 기술력, 콘텐츠, 경쟁력, 높은 모바일 트래픽을 바탕으로 글로벌 모바일 및 인터넷 시장에서 혁신적인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이다.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의 생활을 둘러싼 모든 것을 연결하며, 실시간 상호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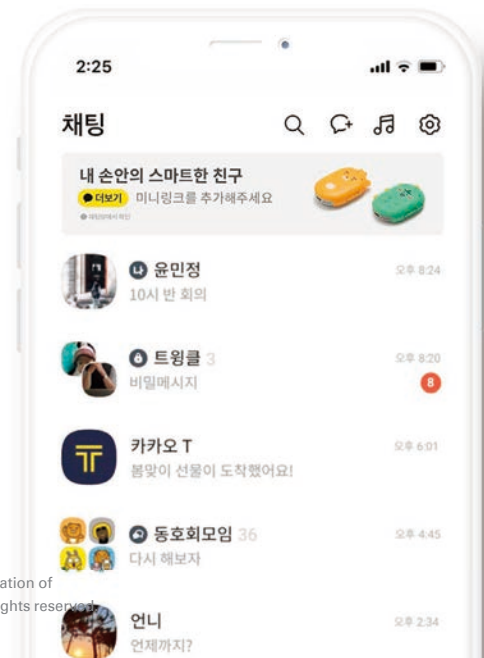
카카오는 대한민국 인터넷의 새 지평을 열어온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세계 최초 모바일 소셜 플랫폼으로 도약한 카카오의 합병으로 2014년 10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출발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있다. 콘텐츠, 모바일메신저, 포털, 인터넷 은행, 모빌리티, e커머스,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카카오는 기존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영역에 진출해 자본에 힘입어 경쟁 우위를 얻는 확장이 아닌 카카오의 플랫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생태계를 만들며 성장해왔다.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카카오는 오랜 시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카오의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완결성을 고도화해왔다. 카카오톡 채팅목록 탭에서 구매, 예약, 회원가입 등의 액션이 몇 번의 터치로 편리하게 연결되는 '카카오 비즈니스보드'는 2019년 10월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20년 12월 기준 일평균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다. 이 밖에 브랜드와 고객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카카오톡 채널'과 원클릭 가입 솔루션 '카카오싱



카카오 비즈니스보드



KAKAO FRIENDS



크', 고객상담, 구매, 주문, 예약 등이 가능한 '챗봇' 등 비즈니스 활동에 최적화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용성 제고와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콘텐츠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공략

카카오는 우수한 IP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게임, 음악, 웹툰, 웹소설 등 각 콘텐츠 서비스 간 상호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공식 출범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강력한 지식재산권(IP) 비즈니스 역량과 플랫폼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 웹툰·웹소설 등의 원천 스토리IP부터 음악·영상·디지털·공연 등 콘텐츠 기획 제작은 물론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까지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와 전 장르를 아우르는 막강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밸류체인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독보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국내외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과감한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K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ESG 경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다!

카카오는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카카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한다. ESG는 카카오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사회적 책임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ESG 추진을 통해 기업 경영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ESG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이라고 정의하고, 네 가지 중점 영역을 선정했다.

“첫째, 카카오만의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힘쓰겠습니다. 둘째, 카카오는 파트너, 크루 그리고 IT 생태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본격적인 ESG 경영을 위해 2021년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신설을 시작으로 내부적으로 12대 실천 분야를 정하고, 80여 개의 추진과제를 진행 중이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건립해 그린 IT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디지털 책임, AI윤리, 프라이버시, 소셜 임팩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권경영선언문 제정, 중요 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 발표, 알고리즘 윤리 헌장 제정 등을 선제적으로 하며 디지털 기업 고유의 ESG 영역인 '기업의 디지털 책임(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골프장 산업 초호황, 성장 요인과 향후 전망은?

대다수의 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기업의 고심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더욱 호황세인 산업이 있다. 최근 이례적인 호황기를 보이고 있는 국내 골프장 산업의 현황과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택트 레저, 골프... 유례없는 호황기 맞이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은 물론 외부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골프장 산업은 해외 원정 골퍼들의 국내 유입과 더불어 골프가 다른 활동 대비 타인과의 접촉률이 비교적 낮은 '연택트 레저(Untact Leisure)'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골프장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8년 3조 984억 원에서 연평균 5.2%의 성장률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5조 6,577억 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 순서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대중제 골프장이 국내 골프장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대중제 골프장의 2020년 매출액을 살펴보면 3조 4,366억 원을 기록

하며, 2008년 대비 356.8% 증가했다. 반면, 회원을 모집해 회원권을 발급하고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2020년 매출은 2조 1,200억 원을 기록하며, 2008년 대비 5.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업이익 또한 대중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20년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40.5%를 기록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18.1%에 머물렀다.

골프장 산업 성장세 이어갈까?

국내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

년 골프장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한 4,371만 명을 기록하며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렸다. 반면 백신 보급 확대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해외 원정 골프 재개와 최근 국내 골프장 이용료 상승 추세로 인해 국내 골프장의 성장세가 차츰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국내 골프 산업의 호황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들의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MZ(밀레니얼·Z)세대, 그 중에서도 여성 골퍼들의 참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MZ세대의 골프 참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골퍼의 경우 2017년 대비 2020년 무려 92.1% 대폭 증가하며 다른 연령대 대비 단연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2020년 여성 골퍼의 수는 129만 7,000명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2.2%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동 기간 남성 골퍼의 연평균 성장률은 9.4%에 머물렀다. 과거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라 생각되었던 골프 산업에 MZ세대들이 많이 유입된 배경 중 하나로 스크린 골프장의 보급 확대를 꼽을 수 있다.

MZ세대들이 접근성이 높은 도심 속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골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흥미를 느낀 MZ세대 신규 골퍼들이 골프장까지 방문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0년 스크린 골프장 수는 7,706개소로 2017년 대비 8.9% 증가했다.

또한 MZ세대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소비 활동을 즐기는 세대이다. 프리미엄 골프웨어나 골프용품을 갖추고 필드에 나가 이른바 인증샷을 공유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골프웨어와 용품 시장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칼럼은 삼성KPMG 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Market Frontier, 『2021년 국내 골프장 산업 동향』을 요약하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접속하시면 보고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골프장 산업 리더

심재훈 상무

Tel. 02-2112-7073

E-mail. jaehoonsim@kr.kpmg.com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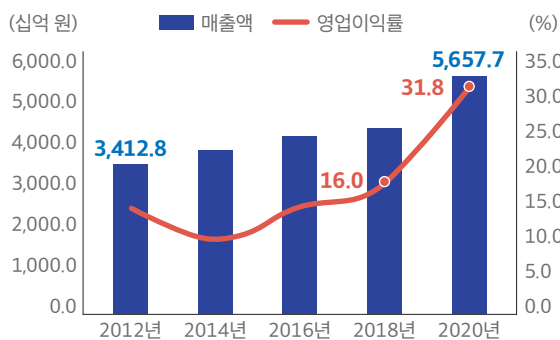
전혜린 선임연구원

Tel. 02-2112-7976

E-mail. haerinjeon@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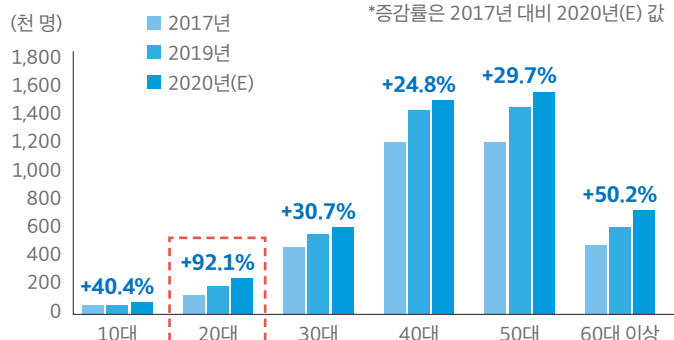


국내 골프장 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Source: '레저백서 2021' 레저산업연구소,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국내 골프장 이용객 연령대별 추이



Source: '레저백서 2021' 레저산업연구소,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디지털 혁신 바람 부는 건설산업의 미래는?

최근 전 산업 분야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물결에 올라탄 가운데 건설산업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 보수적인 산업으로 여겨지던 건설산업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삼정KPMG 건설산업 리더와 함께 건설산업의 현주소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Q1 국내 건설 업계의 현 상황은 어떠한가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물결에 올라탄 전 산업에 비해, 건설산업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지수는 정보통신업, 제조업, 광업, 어업, 농업 등 22개 산업 중에서 최하위로 조사됐으며 생산성 증가율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성장을 위해 집중했던 생산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에 대응하는데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내 건설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Q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나선 글로벌 건설사들이 있나요?

글로벌 선진 건설사들은 일찍이 디지털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최대 건설사인 벡텔(Bechtel)입니다. 2015년 벡텔은 벤처캐피털인 '브릭 앤 모르타르 벤처스(Brick & Mortar Ventures)'를 설립해 2020년까지 연평균 약 6,888만 달러를 건설산업과 관련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디지털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900만 달러 투자를 기록하면서 예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건설사들은 단기간의 성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영역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향후 자사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Q3 건설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많은 건설사들이 전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유관 산업 중심 사업 규모 확장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3D 프린팅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산업의 유행유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근로자 안전 문제와 환경 문제 등 ESG와 관련된 건설산업의 난제 해결에도 디지털 기술이 유용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건설 현장에서 빅데이터, BIM(빌딩정보모델링), 로봇, 드론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환경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건설산업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고도화된 전략을 빠르게 수립해,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달성해 나가, 일거양득의 효과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건설산업 리더 임근구 부대표

Tel. 02-2112-0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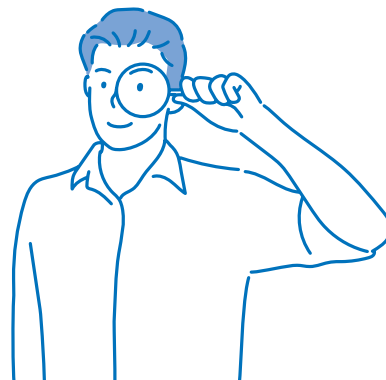
E-mail. gleem@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7월 12일 게재된 환경 CFO Insight '붉은여왕의 마수에 걸린 건설업계' 기고문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온라인 기술 발달 및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새로운 경제 주체들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ESG 경영이 화두를 모으며, 기업을 중심으로 운동과 환경보호가 합쳐진 새로운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맛있는 경제>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탄생한 신조어를 살펴본다.



1 셸피노믹스 (Selfinomics)

셸피노믹스는 개인(Self)과 경제학(Economics)을 합성한 신조어로,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셸피노믹스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 개인 크리에이터들과 연예인과 같은 일반을 칭하는 연반인 등이 있다. 이들은 특정 기업이나 직원군에 소속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익을 낸다. 콘텐츠를 만들어 팔로워 수를 늘리면 기업에서 제품 협찬, 광고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온라인 발달에 따라 셸피노믹스 관련 시장 규모가 급성장 중이다. 미국 마케팅 기업 미디어릭스에 따르면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2016년 25억 달러에서 지난해 100억 달러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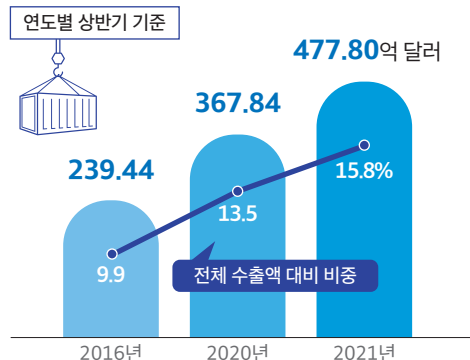
2 플로깅 (Plogging)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가벼운 운동과 환경 정화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플로깅이 확산되고 있다. 플로깅은 ‘줍는다’라는 뜻의 스페인어 ‘Plocka upp’과 ‘달리는 운동’을 뜻하는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이다. 국내에서는 ‘줍다’와 ‘조깅’을 합쳐 ‘줍깅’이라고도 불린다. 이 활동은 스웨덴에서 지난 2016년 시작돼 북유럽을 비롯해 최근에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플로깅이 재미있는 환경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연예인과 기업 등 유명 인사들도 플로깅에 동참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과 맞물리는 플로깅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5년 새 7대 신성장 수출품 2배 성장, 바이오·이차전지 등 주목

지난 7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신성장 유망품목 7개의 수출이 총 477억 8천만 달러(약 54조 3천억 원)로 전년 동기(367억 8천400만 달러) 대비 약 29.9% 증가했다고 밝혔다. 7개 품목은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물, 화장품,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OLED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들 7개 품목의 수출액 총계는 5년 전(2016년 상반기) 239억 4천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2배로 늘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상반기 9.9%에서 올해 상반기 15.8%로 확대됐다.

신성장 품목 수출 실적 |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물, 화장품,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OLED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행복한 일터

HAPPY WORKPLACE

KPMG Story

나는 어떤 리더로 성장하고 있나요?

채용 특집 I SJ워너비!

'SJ워너비! 삼성인 되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채용 특집 II 본부 찾기

뉴 파트너가 소개하는 우리 Function은?

채용 특집 III 삼성별그림

삼성KPMG에서 생활하며
가장 좋았던 순간은?

삼성인터뷰

여성 리더 날아오르다!

이동규의 두줄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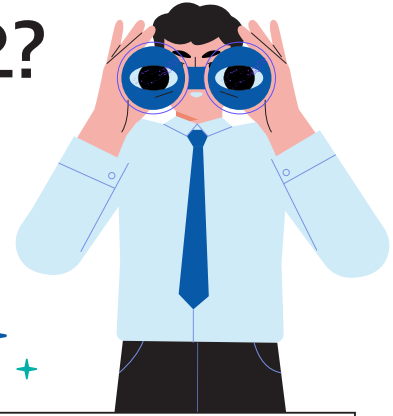
직職과 業業의 차이

Samjong News

'제7회 삼성KPMG ACI 웨비나' 개최 외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나는 어떤 리더로 성장하고 있나요?



삼정인들은 어떤 리더로 성장해 가고 있을까? 삼정인들이 바라고 그리는 리더의 모습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KPMG Values 중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지 이벤트를 통해 들어봤다.

키워드로 만나본 삼정인이 추구하는 리더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다고 뽑았을까? 'Together'

삼정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리더상으로 성장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가치로, 'Together'를 꼽았다. 총 55명이 참여한 이번 이벤트에서 'Together'가 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Excellence' 20%, 'Courage' 15%, 'Integrity' 12%, 'For Better' 10%를 기록했다.



박주경 S.Senior (B&F1)

저는 팀원의 약점은 한 번 더 챙겨 가르쳐주고, 강점은 이끌어 내어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는 팀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Together'의 가치를 꼽았어요. 혼자 힘으로는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는 매 업무 진행 시 팀과 함께 만들어 내는 협업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Together'의 가치를 실현하며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김성욱 Director (IM4)

제가 지향하는 리더는 본인을 비롯해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인지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비전 달성을 위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방안을 세워 공유하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때문에 자기계발을 통해 더 나은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 'Excellence' 가치를, 자신감 있게 업무에 임해야 더 높은 성과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Courage'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요.



안수혜 Consultant (SCG)

저는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싶어요. 이러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Courage- 우리는 진취적이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담대함과 진취성을 바탕으로 주위 동료들에게도 동기부여할 수 있고,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Courage' 가치를 실현해가며 제가 그린 리더상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채용 특집 I

6월 입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SJ워너비! 삼정인 되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이번 호에서는 지난 6월 삼정KPMG에 조기 입사한 신입 회계사들을 만나본다. 이들을 만나 삼정KPMG를 택한 이유와 함께 삼정인이 될 수 있었던 면접 꿀 팁 등을 들어보려 한다.



송재현 Associate (Tax2)

삼정인이 된 기분요? 그야말로, 야호~!

권미화 삼(정)~아~호!를 외치고 싶을 만큼 행복했어요. 오랜 시간 꿈꿔왔던 삼정KPMG 입사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 드디어 정상에 도달한 기분이었죠.

송재현 맞아요! 야호를 외칠 만큼 합격 전화 받았을 때, 정말 기뻐요. 특히, Tax본부를 희망했는데, 희망한 본부에 입사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권미화 Associate (B&F-1)



김병화 저는 합격 통보 당일,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인사팀에 먼저 전화했어요. 때마침 합격 소식을 안내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랬나 봐요. 하하.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합격 당시 기분은 눈물로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울진 않았고,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정철우 저는 불합격인 줄 알고, 친구들과 술 마시며 아쉬움을 달랬는데, 합격 통보 전화를 받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한 번에 해소됐어요. 꼭 오고 싶은 곳이었고, 삼정인이 되어 매우 설렙니다.

왜 KPMG를? 상호존중·고공성장·굿피플

정철우 삼정KPMG의 Value 중 하나인 Together처럼 인재를 중시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지닌 곳이라 생각이 들어 입사를 결심했어요. 입사 후 이러한 조직 분위기를 더욱 느낄 수 있었어요.

송재현 저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조직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생각했어요. 삼정KPMG는 ‘Vision 2020’을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Vision 2025’를 향한 미래 발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없이 법인을 택했어요.

김병화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법인으로 역동적인 조직에서 함께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됐어요. 특히, 재무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싶었던 저는 Deal Advisory는 삼정KPMG가 국내 최고라고 익히 들어서 더욱

김병화 Analyst (Deal Advisory)



정철우 Associate (CE2)



WANNABE

신뢰할 수 있었어요.

권미화 저는 입사 설명회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배 회계사분들을 만나 뵈고, 실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란 점에서 마음이 끌렸어요. 또한, 운이 좋게 ADC본부에서 두 달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최적의 근무 환경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미래의 동기를 위한 면접 팁은?

송재현 저는 면접 첫 질문 중 하나인, 1분 자기소개를 통해 본인의 성격은 물론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된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법인의 비전은 물론 희망 본부의 주요 업무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해당 본부에 입사하고 싶다는 열정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 듯해요.

권미화 저는 오랜 시간 정성으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면접 예상 질문을 유추할 수 있기에, 자기소개서 작성과 함께 면접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시간도 단축되었고, 실제로 면접 시제가 예상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편하고 안정된 상태로 면접에 자신 있게 임할 수 있었어요.

정철우 맞아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생각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최근 코로나 4단계로 7월부터는 비대면으로 면접이 전환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만나진 못

하지만, 다대일로 면접이 진행되어 집중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사전테스트를 통해 시선 처리, 음향 등을 점검할 수 있어 면접이 원활히 진행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김병화 면접 진행 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숙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추가로 본인만의 강점과 약점을 미리 파악하면 더욱 좋을 거 같네요. 아직 만나진 않았지만, 향후 입사를 통해 즐겁게 함께 법인 생활하면 좋겠네요. 하하.

힘찬 시작과 함께 품은 큰 열정으로!

김병화 앞으로 저는 법인 생활에 적응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업무를 익혀, 본부의 에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우 행복하고 즐겁게 법인 생활하며 성장하는 회계사가 되고 싶어요. 시작하는 전문가로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귀담아듣고 주어진 역할에 책임감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송재현 세무 본부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가능한 최대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 실력을 갖춘 세무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권미화 저는 금융권 감사인이 되고 싶다는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전문가로서,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한 금융 산업에 속한 기업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채용 특집 II

예비 삼정인 본부 찾기!

뉴 파트너가 소개하는 우리 Function은?

삼정KPMG는 신입 회계사 지원 시 예비 삼정인들이 직접 희망 본부를 선택하여, 입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어느 본부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예비 삼정인을 위해 이번 호에서는 Audit, Tax, Deal Advisory의 2021년 신입 파트너들이 Function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Audit

#AI도 대체 불가능한 Audit
#적극성과 열정이 있다면!

박상훈 상무는?



소속 Industrial Market1본부

요즘 기분 '회계사의 꿈'이라 하는 Big4 파트너가 되어 기쁨!

목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회계법인이 되도록 기여하고자



Q. 주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산업별로 구성된 감사본부를 통해 각 산업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또한, 기업들의 최대 관심 중 하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구축 및 운영 자문도 제공하고 있어요. 최근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앞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같은 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증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신뢰부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Audit Function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회계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과 재무수치에 대한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지요.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에도 깊이 분석할 수 있어, 짧은 시간 내에 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요. 무엇보다 멘토링으로 선배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며,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예비 삼정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인공지능(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 중 회계사가 포함된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랜 기간 현업에서 뛰었던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회계사의 직업은 대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변화하는 기준에 대응할 전문성과 다양한 해석은 인공지능의 대체가 불가능하고, 대신 회계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이를 통한 감사 업무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IT 분야에 관심을 갖고 준비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회계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전문성 있는 결과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최적의 답을 찾아낼 열정을 지닌 예비 삼정인 여러분, 꼭 Audit을 선택해주세요~!

Tax

#지속성장 #성취감
#상호존중의 문화



조용균 상무는?



소속 Tax3본부

요즘 기분 '보람, 첫 직장인 삼성 KPMG에서 파트너가 되어 보람 가득!

목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Market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전문가

Q. 주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고객들에게 M&A 관련 세무실사, Tax Structuring, 국내외 진출 관련 투자구조 검토, 지배구조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세무검토, 세무조사 지원 및 조세불복 업무, 기업상속 자문, 이전가격 세무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세무 분야는 고객들의 현금유출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관심도가 높고, 매년 개정세법과 새 규정들이 도입되면서 관련 규정이 점점 복잡해지기에 고객사의 자문 수요와 의존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요. 향후에도 삼성KPMG Tax는 경정청구, 조세불복, M&A 자문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세무자문 업무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Tax Function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성취감과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고객사가 고민하는 세무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요. 이와 함께 매년 새로운 세무 이슈를 맞이하고, 개정 세법과 신규 판례 등을 공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어 업무와 자기개발을 동시에 이룰 수 있지요. 또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세무 업무의 특성상 상호존중하는 조직 문화로,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Q. 예비 삼정인들에게 한 말씀! 제가 경험한 삼정KPMG의 문화는 인재를 중시하고 개인이 더 나은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KPMG 미국의 뉴욕 오피스와 KPMG 폴란드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전문가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요. 향후 입사하게 되면, 업무로 바쁘겠지만 동료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해외파견을 위한 자기개발 등 법인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문가로서 당당히 성장해 가길 응원합니다! 실력 있는 조세 전문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Tax본부를 꼭 기억해주세요!

Deal Advisory(DA)

#합리적 분위기
#균형 있는 성장 #행복한 DA

한윤성 상무는?



소속 Deal Advisory3

요즘 기분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 느껴!

목표 배려와 존중으로 즐거움과 성취감 부여하는 파트너

Q. 주요 서비스를 소개해주세요. 주요 서비스로는 매수/매각 자문, 실사, 인수 후 통합자문, 가치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부동산 거래 자문, SOC/Infra 관련 자문 등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 PE와 주요 은행 등 금융기관, 해외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사들에게 재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Function은 연평균 21.4%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2020년 '최우수 회계자문상'을 수상하는 등 양과 질적 측면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Q. DA만이 지닌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열심히 고민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을 설득해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고, 이러한 내용이 뉴스, 신문에 나왔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은 DA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다양한 산업을 접하면서 Deal 전반을 모두 아우르는 M&A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 중 하나지요. 이와 함께,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 워라벨을 위한 합리적이고 행복한 문화를 갖추고 있어요.

Q. 예비 삼정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비 삼정인 여러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역동적인 회계법인, 삼정KPMG에서 일할 때는 전문가답게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또 열심히 쉬면서 여러분들의 전문가로서의 첫 커리어를 쌓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합리적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평가받으며 일하고 싶다면, DA 문을 두드려보세요!

채용 특집Ⅲ

삼성KPMG에서 생활하며 가장 좋았던 순간은?



'Big4 대회' 우승의 순간!

남궁헌재 S.Senior (ICE2)



입사 후 가장 기쁨이 컸던 순간은 'Big4컵' 우승을 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 법인의 축구와 야구 동호회의 가장 큰 행사인, 'Big4컵'은 4대 법인이 모여 봄에는 축구를, 가을에는 야구를 하는 행사입니다. 당연히 각 부서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 처음부터 호흡이 척척 맞진 않았지만, 팀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승리라는 목표를 함께 바라보니, 어느새 호흡을 맞추며 점점 하나의 팀이 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에 입사 후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2017년과 2019년에는 축구를, 2018년에는 야구를, 'Big4컵'에서 우승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로 2년째 대회를 경험하진 못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종식되어 One Team으로 함께 땀 흘리며 기쁨의 순간을 나누고 싶어요.



'처음 순간'을 함께했을 때

조윤정 과장 (Q&RM-RM)



'처음'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잊지 못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삼성KPMG 교육 담당자로 누군가의 잊지 못할 '처음'이었던 순간을 매년 함께하며, 기쁨과 긍정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신입' 과정이 가장 좋았던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기대감, 두근거림의 모습들이 과거 저의 '처음 시작'을 떠오르게 하고, 함께하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기쁨과 에너지가 항상 큰 힘으로 다가왔던 순간이었어요. 코로나라는 큰 변화로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온라인이라는 다른 공간에서 그 감동을 느낄 것에 대해 2021년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 신입 연수, 동기와의 추억들

박형렬 Associate (B&F3)



저는 신입 회계사 연수와 연수조 동기들과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2019년 9월, 연수원 대강당 6반 1조 같은 구역에 함께 멍뚱멍뚱, 어색하게 앉아있던 친구들을 보면서, 3일 동안 이 친구들과 연수를 받겠구나 했던 게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서로 좋은 일(주로 연애), 나쁜 일(주로 이별) 있으면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며 사이 좋게 지내고 있어요. 후배들에게는 아쉽겠지만, 코로나 이전의 신입 연수 막차 탄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채용 특집호’로 진행되는 8월호에서는 삼정인들에게 법원에서 생활하며 가장 좋았던 순간을 물어봤다. 삼정인들이 선정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순간은 언제였을까? 지금부터 삼정인들의 기분 좋은 순간을 공유한다.



가장 행복했던 GEP 해외 연수!

노승현 Manager (B&F1)

2019년에 다녀온 ‘GEP 9기 해외연수’는 잊지 못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첫 입사 때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인상 깊었던 옥스포드에서의 청강도 그렇고,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해외파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던 승진자 연수

양예나 S.Manager (B&F3)



2019년 가을, 영국으로 S.Manager 승진 연수를 떠났을 때가 기억나요. 입사할 때는 병아리들 같았는데 어느덧 다들 9년 차 회계사이자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이 나네요. 직장인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2주간의 꿈 같은 시간을 보냈었죠. 우리 법인의 최고 자랑 중 하나인 S.Manager 해외연수 제도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고생한 모두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ES 2020’에서 자부심을 느꼈던

김기범 S.Analyst (경제연구원)



코로나19 이전, 2020년 1월 미국에서 열린 ‘CES 2020’에 참가했어요. 라스베이거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전시장이 되어, 신제품, 신기술의 향연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던 값진 경험이었어요. 관람객들로 북적이는 한국 기업 부스에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글로벌에서의 KPMG의 위상도 느껴본 순간이었습니다!



◀ 서지희 부대표 Q&RM-RM

2021 여성 파트너 인터뷰 여성 리더 날아오르다!

| 상호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최초의 여성 부대표로! 서지희 부대표 (Q&RM-RM)

1986년 최초의 여성 회계사가 된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회계법인 최초의 여성 부대표가 되었네요.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많은 여성 회계사들과 기업의 여성 임원들이 용기를 주어 감사하다는 메시지였죠. 기쁨과 함께, 여성 리더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회계법인 중 가장 열린 조직의 삼정KPMG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입사 후 법인에서 출산휴가 규정을 적용받는 첫 사례였고, 파트너 승진 시에도 대형 회계법인에서 여성 파트너가 된 첫 케이스였죠. 수평적인 조직문화, 상호존중하고, 열린 문화를 지향하는 법인 덕분에 첫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그 후에 많은 여성 파트너를 배출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 제 바람은 'Never ever give up!' 많은 여성 후배들이 본인의 속도를 유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멘토나 선배들에게 편하게 묻고, 고민을 나누며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선배 리더로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법인이 'Vision 2025'를 향해 첫걸음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법인의 중요한 자산인 인재 육성을 위해, 또 행복한 일터를 위한 조직문화를 탄탄히 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 열심히 일하는 인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곳! 현승임 전무 (Q&RM-DPP)

승진의 기쁨과 함께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DPP Accounting team을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불철주야 회계이슈 해결에 애쓰고 있는 팀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삼정KPMG는 성별 구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인재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의 일은 전문 지식의 중요성이 높은 직업인만큼, 여성에 있어 그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업계 최초로 여성 임원을 배출하기도 하고, 최초의 여성 부대표도 우리 법인에서 탄생한 것처럼요. 무엇보다 여성 네트워킹을 통해 여성 인재들의 건의 사항을 잘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우수한 여성 인재를 유지하고 양성해왔던 것 같아요. 그 중 저는 사내모임 'KNOW(KPMG Network of Women)'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여성 동료 및 선후배들과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를 그려보며 고민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큰 힘을 얻었어요. 또한, 롤모델이 되어주는 선배 여성 파트너분들을 통해, 저 역시도 향후에 후배 회계사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법인 구성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MZ세대를 아우르는 등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포용하며, 늘 도전정신으로 팀의 성과도 잘 이끌어 내는 리더가 되고 싶네요!



◀ 현승임 전무 Q&RM-DPP





매월 다양한 주제를 통해 삼정KPMG의 인재존중 스토리를 담아보는 <삼정인터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성 인재 발굴과 육성에 앞장서는 삼정KPMG를 소개하려 한다. 2021년 여성 파트너 승진자를 통해,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와 여성 리더로서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본다.

남녀평등! 모두에게 열린 조직 삼정KPMG 홍민정 상무 (Tax5)

법에 첫 출근하던 날이 생생한데, 어느덧 신입 파트너가 되다니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제게 많은 도움을 준 선배님들 얼굴도 떠오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남자들의 리그라 불리는 회계법인이지만, 삼정KPMG는 여성에게 매우 많이 열린 조직이라 생각해요. 동등한 기회 제공 및 리더 발굴을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늘 노력하고 있음을 느껴요.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 간의 열린 대화를 중요히 생각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며 행복한 조직을 목표로 나아가는 유일한 법인이라 생각해요.

저는 사내 여성 모임 'KNOW' 활동으로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고 있어요. 과거, KPMG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오피스에 Tax Trek으로 파견하던 중에 많은 여성 전문가들이 'KNOW'에 참여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우연히 참여하게 됐죠. 귀임해서도 이 활동을 통해 선배들과 소통하고 힘든 점을 나누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도움을 받은 만큼 앞으로 여성 후배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싶어요. 우리 조금 느리더라도, 멈추지 말고 앞으로 함께 손잡고 걸어 나가요! 파이팅입니다!



▲ 홍민정 상무 Tax5

직원과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곳 강진명 상무 (ICE2)

13년째 법인과 함께 성장 중인데, 좋아하는 일과 믿을 수 있는 선배가 있는 조직에서 파트너로의 승진은 '깜!' 비명을 지를 만큼 최고로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회계법인이 보수적일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되려 다른 산업에 비해 여성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다고 봐요. 특히 우리 법인은 임직원의 가족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조직 문화로 육아기 단축 근로제도 법정기간 외 추가 제공, 아빠 육아휴직 증대, Mom's room 운영 등 출산과 육아기에 있는 우수 여성 인재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어요. 특히, 저는 법인에서 지원하는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팀원들과 성과를 내는 방법을 고민하는 등 업무 과정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터득할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목표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직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에 팀원뿐만 아니라 고객사 담당자들과도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동료와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발전해 가겠습니다.



▲ 강진명 상무 ICE2

인사 과정





업으로 가면 직을 얻는다.
직으로 가면 업을 잃는다.

직職과 업業의 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놀라운 건 그토록 중요한 직업 선택이 대부분 우연한 계기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직업상담학의 대가인 존 크롬볼츠는 “청년기 때 계획했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성인은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 이민자의 직업은 대부분 처음 공항에 마중 나온 지인의 직업에 따라 결정됐다고 한다.

일단 직업이란 ‘직(職)’과 ‘업(業)’의 두 글자가 결합된 단어다. 우선 ‘업(業)’이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이자 하늘이 내린 엄숙한 사명이다. 힌두어로는 ‘karma’, 라틴어로는 ‘mission’ 이다. 업과 결합하는 단어는 창업, 생업, 사업, 주업, 부업, 과업, 잔업 등등 무수히 많다. 삶이란 결국 자신의 업을 발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企業)’이란 의미는 업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사람들을 뽑아서 일과 월급을 주어 그들의 가족을 부양케 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성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아무리 작은 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직원을 채용하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땅의 수많은 창업자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직(職)'이란 잡(job)이고 타이틀이고 명함이다. 직장에 다닌다고 '업'이 생기는 건 아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리에만 침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업을 찾는 일은 한마디로 '내 인생의 보물찾기'라 할 수 있다. 그 때 만난 직을 가리켜 '천직(天職)'이라 부른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조기에 발견해내는 것이야말로 각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마크 트웨인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날은 태어난 날과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날이다"라고 읊은 의미는 매우 심장하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직업에 따른 계층적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말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의 차이는 엄연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수많은 직업들 중 맨 뒤에 들어가는 접미어로서 '부', '원', '사', '가' 등이 있다. 특히 자기 자식만큼은 기어코 '사'자 직업군에 들어가야 한다는 한국 부모들의 노력은 거의 염원에 가깝다. 흥미로운 건 같은 '사'자라 하더라도 그 의미는 각각 다르다는 사실이다. 변호사는 선비 '士', 검사와 판사는 일 '事', 그리고 의사는 스승 '師'자를 쓴다.

치열했던 산업화시대를 일구고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 그들이 인생 전반기에 살아온 일은 자신의 업과는 동떨어진 호구지책으로 결정된 경우가 허다하다. 주위를 보면 남보다 못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젊은 청춘들 또한 유례없는 취업난 속에 업을 찾기는커녕 변변한 직도 구하기 어려운 심각한 현실이다.

수년간 서울대 신입생 조사를 보면 젊은이들의 직장 선호기준 1위는 바로 연봉, 즉 돈이다. 그 다음이 안정성, 그리고 그 다음이 소질이다. 물론 경제적 요소가 현실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길게 보면 자신의 DNA와 맞지 않는 일은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만다. 궁극적으로 "업으로 가면 직을 얻고, 직으로 가면 업을 잃는다"는 선조들의 혜안을 복기해본다.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동규 교수는 국내 거의 모든 종류의 조직을 진단·평가해온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급 강사로도 유명하다. 특히 신작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21세기북스, 9쇄 돌파)는 각종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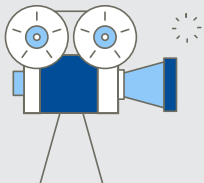
이 교수의 《두 줄칼럼》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조직문화, 혁신 등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 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초미니칼럼(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독창적인 언어 플랫폼이다.

Samjong News

‘제7회 삼정KPMG ACI 웨비나’ 개최 국내 최초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Search <https://kpmgacademy.hunet.co.kr>



ACI 웨비나 동영상 드라마를 ‘삼정KPMG 아카데미’에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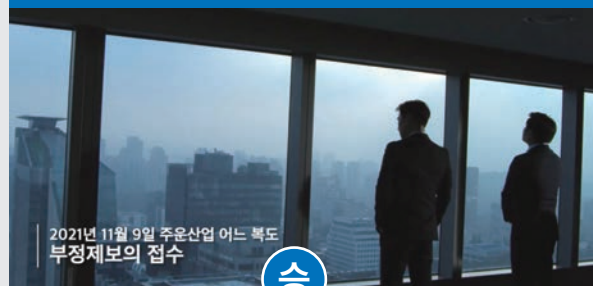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기

부정신고 접수와 경영진의 대응



승

05:10 / 10:00

삼정KPMG가 지난 7월 22일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7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국내 최초 동영상 드라마를 제작해 사례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부정 조사 및 보고의무'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논의했다.

감사위원회 활동을 담은 동영상 드라마는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부정신고 접수와 경영진의 대응 ▲외부감사인의 의혹제기 ▲감사위원회 주도의 부정조사와 후속조치 등 4가지 주제로 제작되어 상영됐다.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오프닝 세션을 통해 "이번 웨비나를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삼정KPMG 역시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 세션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법규 제·개정 현황을 전했다. 공정경제 3법 및 기업공시제도 개혁안 등을 포함해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법제도 환경을 살펴봤다.

두 번째 세션은 삼정KPMG ACI 심정훈 상무가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를 소개하고 실시간 설문 결과와 그 시사점을 공유했다. 패널토의에서는 삼정KPMG 자문교수단(이만우 고려대 교수, 전영순 중앙대 교수, 송재용 서울대 교수) 및 강연자가 참여해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Q&A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삼정KPMG 감사부문 한은섭 대표는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재무보고와 관련한 부정조사 및 사후조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이 강화됐다"며 "부정예방과 적발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과 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에 있으며, 적극적인 감독 활동으로 부정방지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Contact: ACI 심정훈 상무 jshim@kr.kpmg.com

국내 최초 동영상 드라마 방식으로 열린 'ACI 웨비나'에서 상영된 동영상 드라마는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Samjong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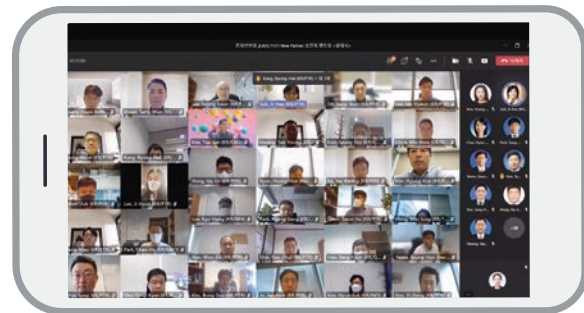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발간



지난 7월 21일 삼정 KPMG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ESG 경영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ESG 정보공개 방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됐다. 안내서는 ESG의 의미, 부상배경, ESG 경영 활동 등 ESG 경영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협력전략 및 ESG 정보공개 방안 등 중소기업 CEO들이 ESG 경영 전략 마련에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이 책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된다.

‘FY21 New Partner 승진자 멘토링 발대식’ 열려

지난 7월 9일 ‘FY21 New Partner 승진자 멘토링 발대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발대식은 FY21 New Partner의 성공적인 역할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멘토와 멘티의 역할 및 책임, 강점 이해를 바탕으로 그룹별 멘토링 주제와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New Partner들은 자신을 넘어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Outward Mindset 관점을 배우고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정포럼, ‘MZ사피언스’ 주제로 대학내일 김영훈 대표 강연 나서

지난 7월 7일 ‘삼정포럼’이 ‘MZ사피언스 - 이해하고 연결하고 함께 일하기’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대학내일 김영훈 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김 대표는 MZ세대를 이해하고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MZ세대와 함께 일하기 위한 4가지 워킹 트렌드도 소개했다. 그중 한 가지 예로 MZ 구성원들이 조직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동일시하지 않는 만큼 ‘직무이동 및 순환제, 주니어 보드 운영, 사이드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등 개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온라인과 텍스트에 익숙한 세대이기에, 효율적 비대면 소통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INTRODUCE

신규 영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SCG본부 박형철 부대표 & 정지영 전무 영입

삼성KPMG가 지난 7월 15일 SCG본부에 업계 최고의 HR 컨설팅 전문가, 박형철 부대표와 정지영 전무를 영입했다.

박형철 부대표는 20여 년간 인사 조직 컨설팅에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오며, 국내 인사조직 컨설팅 시장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Agenda와 표준 개발을 리드해왔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인의 전략, 디지털, 인수합병, ESG 등 다양한 분야와의 시너지를 도모하며 사업과 디지털 환경에 정합성 높은 인사조직 컨설팅이란 차별화된 제공 가치를 바탕으로 인사조직 컨설팅은 물론, 통합 경영자문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며 법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철 부대표는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전문가 분들과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며 시장을 리드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 목표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 플랫폼인 삼성KPMG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입사 소감을 전했다.

정지영 전무 역시, 20년 이상의 HR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국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임원 인사관리, Global HR 체계 구축, 리더십 관리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도해왔다. 최근에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Digital HR 전략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인사 혁신을 과제를 이끌어 왔다. 정지영 전무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가슴 뛰는 일입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KPMG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 내고, 고객들에게는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조직 컨설팅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외부의 다양한 분들을 찾아 뵙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아 보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형철 부대표 (SCG본부)

경력

- Mercer, 대표이사 (07~21년)
- Mercer, 글로벌비즈니스본부장/이사 (05~06년)
- Andersen Consulting, Experienced Consultant (99~02년)
-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97~98년)
- 前 LG그룹 자문위원, 前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 前 인사혁신처 자문위원, 前 다국적기업경영자협회 이사, 現 인사혁신처 국제교류사업 자문위원



정지영 전무 (SCG본부)

경력

- Mercer Korea, 부사장 (08~21년)
- Watson Wyatt, 상무 (03~08년)
- IBM BCS (99~03년)
- Andersen Consulting (98~99년)
- 前 인사혁신처 자문위원, 前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겸임교수

NK BIZ FORUM

NK비즈포럼 제6기 모집

‘NK비즈포럼’에 초대합니다!

‘NK비즈포럼’은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삼성KPMG와 중앙일보가 함께 진행하는 남북경협 최고경영자과정입니다.

삼성KPMG·중앙일보가 북한·경제 전문가는 물론 대북사업을 경험한 기업인, 북한 고위층 출신 인사를 초청하여 북한의 현실 정책과 시장,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평화경제 시대, NK비즈포럼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기간

2021년 9월 중 개강 (매주 목요일 저녁)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개강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장소

롯데호텔서울 or 더 플라자호텔

선발 대상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주요 기관·단체장
대북 진출, 남북경협 등 북한·통일 이슈에 관심 있는 분



• NK비즈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문의

nkbizforum.com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화	02-2112-2743
이메일	seungpyohong@kr.kpmg.com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